



여수엑스포 실사 마무리·향후 대책

“절반은 성공... 전방위 외교전 펼쳐라”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희망을 보았다.”

여수가 2012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적합한 지를 가리는 국제박람회사무국(BIE)의 실사가 13일 서울에서의 마지막 프리젠테이션과 기자회견 등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박람회 유치를 위한 첫 시험무대로 지난 11~12일 여수 현지 점검을 포함해 진행된 이번 실사에서 정부와 전남도, 여수시,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큰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다.

까르맹 실뱅 BIE집행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7명의 실사단은 이구동성으로 “여수가 개최 의지 및 능력을 보여 주었다”고 말했다. 여수가 빈틈없는 준비와 뜨거운 열기 속에 실사를 치러내 호평을 받음으로써 박람회 유치에 절반은 이미 성공한 셈이다.

정부는 대대적인 사회간접자본(SOC) 지원에 나섰고 여수시는 기업체와 시민들을 독려, ‘청결·질서·친절·봉사’라는 ‘엑스포 4대 운동’을 전개하며 손님맞이 준비를 완벽히 끝냈다. 14개 평가 항목 각 분야 전문가가 발표자로 나서고 세계 최고 기술의 첨단기술이 집결된 여수 차레의 프리젠테이션은 실사단에 한국 박람회 유치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노무현 대통령까지 현지에 내려와 합성 환경리셉션을 주재해 우리 정부의 유치 의지를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여수시민들은 거리제엄, 시민환경행사 등을 통해 실사단을 열렬하게 환대해 깊은 감명을 주었다.

지역주민들의 뜨거운 열기는 실사 마지막 날까지 이어졌다. 전남지역 주민 1천200명은 13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 앞에 운집해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는 원정 환영회를 열었다. 여수·나

모로코·폴란드보다 실사 빨라 인지도 유리

6월 BIE총회 대비·치밀한 득표전략 필요

주·곡성·진도 등지에서 이날 새벽에 버스를 빌려 상경한 이들은 창덕궁부터 경복궁까지 도로를 따라 2km 정도 장사진을 이룬 채 창덕궁을 관람하고 나온 실사단의 버스가 지나가자 ‘환영’ 깃발을 흔들었다.

한편 실사단이 최종 실사 보고서에 어떤 점수를 매길 지는 알 수 없다. 부족하거나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실사 결과는 경쟁국 실사 이후 BIE집행위원회를 거쳐 오는 6월 파리에서 열릴 예정인 제141차

총회에 보고된다.

경쟁국인 모로코, 폴란드보다 먼저 실시된 실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기선 제압’에도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실사가 개최지 결정에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핵심이 될 개최조건, 지역민들의 유치 의지 등을 점검, 이를 BIE회원국들에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비중을 간과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실사가 끝난 지금부터다. 실사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지속적인 유치 범 조성 노력과 함께 4월 30일~5월 4일, 5

월 14~18일 각각 실시되는 모로코와 폴란드 실사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경쟁국과 또 한차례 프리젠테이션 대결을 벌여야 할 6월 BIE총회에 충실하게 대비해야 한다. 세계박람회 유치의 선결 조건인 SOC를 차질없이 확보해야 하며 BIE회원국들을 상대로 전방위 외교전과 치밀한 득표전략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2년세계박람회 개최지는 오는 11월 27일 회원국 3분의 2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를 실시, 3분의 2 이상 득표한 곳으로 결정된다.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득표국이 없을 경우에는 최소 득표국을 제외하고 2차 투표를 실시해 개최국을 정한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준비 실사에 나선 국제박람회사무국(BIE) 까르맹 실뱅 집행위원장과 실사단 대표들이 13일 서울 창덕궁을 방문, 유홍준 문화재청장의 안내를 받으며 창덕궁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설

일선학교 ‘반 강제적’ 찬조금 근절돼야

광주시내 한 사립고교가 학부모를 상대로 찬조금을 모금해 발생한 명목은 학교발전기금 조성이다.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등을 참고해 경제력이 있는 중산층 학부모 300~400명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지금까지 15명으로부터 600여만원을 모금했다고 한다.

학교발전기금 조성은 법적으로 허용됐다. 하지만 일선 학교들이 경쟁적으로 찬조금 명목의 기금 조성에 나서면서 각종 물의를 빚고 있다. 모금방법과 기금 집행절차, 사용자 등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찬조금은 자발적인 성금 형식을 띠고 있지만 반강제적이거나 다름없다. 상당수 학부모들은 찬조금을 내지 않을 경우 자식에게 불이익이 돌아올까봐 울며 겨자 먹기로 모금에 협조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는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학생들간의 위화감도 문제다. 찬조금 모금을 중산층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했다지만 가정통신문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두렵다. 어쩔 수 없이 찬조금을 내지 못하는 학부모들의 심정은 또 오죽했는가.

‘반 강제적’ 찬조금은 근절돼야 한다. 아무리 학교발전기금이라지만 의자와 책상 등 학교시설물 구입 비용을 학부모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다. 학교측은 학교운영위원회를 앞세우고 있지만 이는 형식논리에 불과하다.

찬조금에 자발적 기부에 국한해야 한다. 반강제적으로 할당하는 것은 학부모들의 반발과 갈등 등 부작용을 빚을 수밖에 없다. 교육당국은 찬조금을 둘러싸고 불법사비나 비교육적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4년만에 최악 기록한 삼성전자 영업실적

삼성전자가 내놓은 올 1분기 실적 바닥을 쳤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LCD 패널 사업의 부진으로 1·4분기 영업이익이 1조3천800억 원에 머물며 4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국내 증권사들이 전망했던 영업이익 추정치 1조3천억 원보다 못한 것이며 지난 2003년 2분기 1조1천610억 원 이래 15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의 실적부진은 연초 삼성그룹 이근희 회장이 “삼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어렵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5~6년 후엔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한 ‘샌드위치론’이 현실화될 수도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어서 걱정스럽다.

지난 한 해 동안 한국경제는 세계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세계 5대 휴대전화 업체 중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계시장 점유율이 줄었다. 현대자동차

는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에서 판매부진으로 재고가 넘쳐났다. 지난해 중국산 LCD 패널 사업의 부진으로 1·4분기 영업이익이 1조1천610억 원에 머물며 4년 만에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국내 증권사들이 전망했던 영업이익 추정치 1조3천억 원보다 못한 것이며 지난 2003년 2분기 1조1천610억 원 이래 15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삼성전자 실적 부진은 우리 경제에 보내는 하나의 경고음이다. 한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 등 후발주자들이 우리의 5대 주력산업을 추월하면 혼란이상의 심각한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기업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수익분야를 창출해야 하고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정부나 기업 모두 한국경제가 처한 위기를 직시하고 정신 바짝 차릴 때다.

北, 美 BDA 최종해법 수용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BDA) 동결자금과 관련한 미국의 최종해법을 수용할 뜻을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이 지난 10일 BDA최종해법을 제시한 뒤에도 북부부담으로 미국과 한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의 속을 태우던 북한은 사흘만인 13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우리의 해당 금융기관이 이번 (미 재무부) 발표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 곧 확인해보게 될 것”이라며 “제재 해제가 현실로 증명되었을 때 우리도 행동할 것”이라고 공식 밝혔다.

BDA 자금을 손에 넣을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본 뒤 2·13합의에 따른 초기이행조치에 나서겠다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사실상 미국의 최종해법을 받아들인 것이다.

북한이 고심 끝에 BDA 최종해법을 수용키로 한 것은 BDA 최종해법이 나오기까지 미국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부시 행정부의 대북관계 정상화 의지에 대한 확신이 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의 최종해법은 BDA에 묶인 자금을 불법·합법 계좌를 가리지 않고 전액 자유롭게 찾을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용처 제한’을 해제하는 대신 북한측이 막판에 요구해온 계좌이체문제는 북측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북한이 BDA해법을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행길 수 있는 경제적 실익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2·13합의에 따라 초기이행조치 이행에 들어간다면 당장 중유 5만톤의 지원과 함께 쌀 40만톤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강동호 호남비하발언 동석

유승민 의원 윤리위 제소

열린우리당은 13일 강동호 방송위 상임위원의 호남비하 및 방송장악 의혹 발언과 관련, 지난해 11월 강위원의 발언이 행해진 자리에 동석한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당 선병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진상조사

위 차원에서 오늘 오전 유승민 의원을 국회위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김명준 최고위원은 “미디어오늘에 공개된 한나라당 방송장악 음모에 관한 특취록 전문을 읽어보면 한나라당이 집권했을 때 우리 역사가 20년, 30년 전으로 후퇴하고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격정을 하게 된다”며 “한나라당이 대선가도를 위한 방송장악의 일환으로 강동호 위원을 기획추천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강하게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강위원의 사회와 한나라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8대 국회서 개헌논의’ 한나라, 당론으로 확정

신당모임·민주 ‘통합교섭단체’ 내주 구성 내달초 창당 완료...40석 안팎 될 듯

한나라당은 13일 18대 국회에서 4년 연임 대통령제를 비롯한 개헌 문제를 다룰 것이라는 당론을 확정했다.

한나라당은 청와대가 전달 18대 국회에서의 개헌안 처리에 대한 당론 결정과 대국민 약속을 요구한 것과 관련,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당론을 확정했다.

이날 의총에서 김형오 원내대표는 ▲18대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국회가 개헌논의를 주도하고 ▲4년 연임제를 비롯해 모든 내용을 논의하며 ▲다음 대통령 임기중 개헌을 완료토록 노력하고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이런 사항을 공약으로 제시한다는 내용의 ‘개헌논의 당론’을 설명했고, 출석 의원

들은 박수로 이를 추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박수소리를 청와대에서는 듣고도 못들었다고는 못할것”이라며 “오늘 당론 확정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차분하게 부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당론 확정으로 개헌문제는 더이상 말을 안해도 알 것”이라며 “개헌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이미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으므로 개헌 발의를 유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총에서 김홍중 삼수산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을 제출하는 방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연합뉴스

열린우리당 탈당그룹인 통합신당모임과 민주당 및 국민중심당 일부가 내주중 ‘통합교섭단체’를 구성하고 5월 초순까지 창당 작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상천 대표와 김효석 원내대표, 통합신당모임의 최용규 원내대표와 이강래 통합추진위원장 등은 13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중도개혁 통합신당 추진협의회’(중추협) 첫 회의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통합교섭단체의 규모는 이미 확정된 의석 35석(신당모임 23석, 민주당 11석, 국민중심당 1석)에다 민생정치모임과 국중당 일부의 원들이 가세할 경우 40석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신당모임 박상돈 의원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통합의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측면과 신당창당 이전에 개헌과 한미 FTA 등 당장 대응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측면을 감안해 내주중 통합 교섭단체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신당모임과 민주당은 17일 2차 회의를 열어 통합 교섭단체 구성방법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발기인 대회 및 창당준비위원회 구성 등 창당일정과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5월초까지 정당법상 법적 지위를 갖는 기구를 만드는 작업을 마치는데 양측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당모임에서 최 원내대표와 이 위원장, 이근식 박상돈 조일현 김낙순 의원 등 6명 그리고 민주당에서 박 대표와 김 원내대표, 최인기 정책위의장, 이낙연 의원, 고재득 부대표, 유종필 대변인 등 6명이 각각 참석, 협의회의 정과별 구성비가 6(민주당) : 6(신당모임) : 1(국민중심당)로 정리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A cartoon illustration showing a man holding a sign that says '10 years in 4 years' and another man holding a sign that says '5 years in 3 years'. Below the illustration is the text '당장 여수엑스포나 지원 좀 하지'.

삼성전자 1분기 실적 4년만에 최악. 반도체·LCD 가격 하락 주요인.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LCD의 제품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올 1·4분기 영업이익이 2003년 2분기 이후 4년 가량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부진한 경영실적을 보였다. 이같은 실적은 시장 전망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지만 TV와 휴대폰, 생활가전 등에서 선방하고, 반도체와 LCD 제품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2분기 이후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올 1분기에 매출은 14조3천900억원, 영업이익 1조1천800억원, 순이익 1조6천억원의 경영실적을 각각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연합뉴스

광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including phone numbers, fax, and website. It also lists the names of the publisher, editor, and other staff members.